

“한-일 불교 교류 소중한 기회”

백제불교 초전지 성역화 추진위장 다정스님



“한 일 불자들이 새 역사를 열어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좋은 기회를 맞아 한국과 일본의 불자들이 마음을 합하고 불교문화를 창조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다정스님

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주지·사장은 일본불교의 지도자급 스님들이 영산사에서 열린 ‘문화교류를 위한 1천일 기도 입재식’에서 백제 불교 초전지 성역화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에,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불교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져 불교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산사 주지 와사다 예수스님과 원수사 주지 신준도 스님이 법성포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흔쾌히 불사 동참을 수락해 기쁘다”는 스님은 “백제 시일내 불사가 마무리 되어 세계평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법성포 불사에 전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영광군 법성포 백제불교초전지 성역화 사업 조감도. 1:마라난타존자상 2:부용루 3:기념광장 4:탑원 5:불교유물 전시관 6:기념품 판매소 7:정문 8:정지 9:홍교 10:연못 11:데크 12: 화장실

백제불교 초전지 법성포 한·일 불교계 성역화 합심



○한국과 일본의 불교 지도자들이 협회를 끝내고 영산사법당앞에서 기념촬영.

384년 한반도 서쪽, 법성포구에 검은 얼굴의 승려복장을 한 이방인이 백에서 성령 성령 내렸다. 이를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는 ‘침류왕 원년 9월, 인도승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이르니 왕이 공중으로 맞아들어 예우하고 공경하므로 불교가 시작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검은 얼굴의 인도승려가 바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한 마라난타(摩羅難陀). 인도

다(조강도 침초).

일본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준 ‘고마운 나라’ 백제불교의 처음을 상징하는 영광 법성포 성역화 불사에 일본 불교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월 14일, 일본 오이타시(大分市)에 있는고찰 영산사(靈山寺)에서는 ‘세계평화와 한일문

“일본불교의 씨앗... 감동적”

日 영산사 주지 와사다 예수 대승정



영산사 주지 와사다 예수(73·사진) 스님은 일본 천태종단의 주요 직을 맡아오며 밀다가 지난해 대승정(원회)으로 추대된 일본 불교계의 원로이다.

와사다 스님은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지만 영광군 법성포 불사 공동 참여를 통해 정신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한국에 가 법성포 불사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바로 일본불교의 씨앗이 심어진 곳 이구나 생각하니 몹시 감동적이었 다”고 트로한 스님은 “한국에 10여 차례 갔었으나 지난 번 백양사에서 숙식하며 한국 사찰의 전통과 수행 풍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5살때 폐가 나빠 요양소에서

요양하다가 무상(無常)을 절실히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스님은 이후 승려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전파되도록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데 불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를 발전시켜 왔으니 앞으로는 한·일 두 국민은 마음을 열고 새 역사를 열어 공동번영의 중심 축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다.

이러 일본 축사가 이어졌다. 일본 스님들은 한결같이 “마라난타스님이 전해준 불교가 일본에 와서 피와 살이 되었다”며 “그들만의 한 코로는 고기를 잡

을 수 없지만 한 코 한 코가 모여 그들만이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만큼, 모두 합심하면 불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회향을 기원했다.

이렇게 일본 불교계가 백제불교 초전지 성역화에 적극 나서게 된 데는 한국인 권명애 스님의 역할이 컸다. ‘묘아’ 스님으로 불리는 권명애 스님은 일본 원수사(圓壽寺) 회주 진호림스님의 병을 고쳐주면서 일본

日스님·신도등 300여명 동참 ‘은인의 나라’ 불사 위해 모연

99년 착공 2004년에 회향 마라난타像·만불전등 건립

간다라로부터 동진을 거쳐 온 마라난타 스님은 수행을 깊이 하여 신공력도 뛰어나 불교를 전하는데 헌신했으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인연이 닿은 곳이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전한다.

마라난타로 인해 백제에 전래된 불교는 약 1백여년 후, 활발한 교류를 가졌던 일본에까지 전해진다. 많은 스님들이 전법을 위해 일본으로 갔으며 경전, 불구(佛具)들이 전해져 일본은 불교전래로 인해 비로소 문화의 씨가 풀어나고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바로 마라난타스님이 처음 도래한 곳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일대 1만 4천여 평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 불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백양사 불갑사를 비롯한 호남불교계와 전남 영광군이 지역 전통문화의 역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장소를 조성,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서해안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적 문화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영광군과 ‘성역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다정 백양사 주지)’가 주관하는 불사는 1999년 시작됐다. 오는 2004년 상반기 불사가 회향되면 높이 18m의 마라난타 상을 비롯 만불전, 부용루, 불교전시관, 탑원과 홍교, 마라난타 스님이 타고온 배, 정자, 데크, 연못 등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된다.



○7월 14일 일본 영산사에서 열린 ‘세계 평화와 한일문화교류를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에서 김봉열 영광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교류를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이 열렸다. 일본인들은 백제를 ‘은인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러한 고마움의 일환으로 일본 불자들이 ‘은인의 나라’ 백제초전지 성역화를 위한 천일기도를 올리고 불사를 위한 모연(募緣)에 들어간다. 천일기도 대법회는 조계종 원로 천운스님(대문사 조섭)의 증명하에 다정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일본 천태종 와사다 예수 대승정을 비롯 일본 불교계 지도자들, 영산사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일본과 한국의 전통예불의식으로 시작된 법회는 관음원 아베스님이 사리를 맡아

2시간동안 봉행됐다. 천운, 다정 스님을 비롯 백양사 총무 진우, 교무 도성, 호법 원일, 불갑사 주지 만담 스님, 김봉열 영광군수, 이준근 영광군 문화관광 과장 등이 한국에서 건너와 동참했으며, 일본 고리사 조실 태연스님, 오사카 관음사 주지 원인 스님등도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천태종 대표 신준도, 연력사 대표 고가모 가쿠엔, 천태종 중무총장 후지 고겐, 입정교성회와 진언종 대표 등 불교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천운스님은 “한국과 일본이 전통적



○오는 연말 완공되는 부용루. 1층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가 23연 조각으로 조성되며, 2층은 전망대와 강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 우호관계를 되새기면서 이러한 대작사에 함께 동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은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가 뜻 깊은 자리에서 만나 인류평화를 기원하고, 공동으로 큰 불사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다. 김봉열 영광군수도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영향받으며 문



○마라난타스님이 백제에 올때 배에 함께 싣고 왔다고 전해지는 석불(진내리 웅성마을). 전시관이 완공되면 옮겨져 봉안된다.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만 4천여 평 일대에 진행중인 백제불교초전지 성역화 불사는 영광군이 지역 기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총사업비 170억 6천 4백만원의 대 프로젝트다. 영광군이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지자체장인 김봉열군수의 헌신적인 지원에서 잘 나타난다. 이번 일본방문은 물론이고 98년에는 백양사 스님들, 조선대 김인경 교수 등이 마라난타 스님과 관련있는 인도, 파키스탄 등을 직접 답사했다. 영광군은 98년 2월에는 동국대에 학술 용역을

불교계와 인연, 지난해 천태종에 입교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천일 기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권명애 스님은 입재식을 기점으로 불사의 원만성취와 한 일 불교 발전을 위한 기도에 들어갔다.

일본 오이타시 영산사=이경숙 기자 gislee@buddhista.com

‘성역화불사’ 어떻게 진행되나

총사업비 170억 대프로젝트

관광객위해 전망대·연못 조성

의회, 세미나를 통해 최초도래지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2000년 4월 성역화추진위가 구성됐고 진입도로 개설에 이어 본공사인 부용루의 기공식이 지난해 6월 7일, 지역민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시관에는 마라난타스님이 백제에 올 때 모셔왔다는 석불을 비롯, 추진위가 파키스탄 등에서 구입한 각종 진품 간다라 불교미술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포구 앞 바다에는 마라난타스님이 타고온 배도 띄워지며, 전망대와 연못, 데크도 조성한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증급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증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은 이치로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몰려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봉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호로 오는 요통, 신경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